유가 급등과 인플레 공포, 이란 유조선 공격에 증시 하락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이란 전시상황에 유가 변동성, 투자심리 경색

- 미 증시는 DOW -1.61% S&P500 -0.56% NASDAQ -0.26% 대부분 업종 약세이나 에너지, 기술주 선방
- 변동성 확대 요인은 유가. 이란의 휴전협상 부인과 지상군 침공시 강경대응 시사, 걸프 해역에 정박한 유조선의 피격 소식에 장중 WTI $80 상회. 걸프 해역 내 정박중인 원유 및 LNG 선은 약 200 척 규모로 추산
- 다만, 장후반 유가 상승폭 일부 반납 WTI $79.1(+5.9%).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원유, 가스 수송로 재개방을 위해 이란과 협상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에 주식시장도 낙폭 일부 되돌리며 마감

내부적으로는 트럼프행정부 정책 압박 이어져

- 미 법원, 무효판결된 상호관세 납부액 환급 명령. 최대 1,750 억 달러(한화 약 198 조원) 규모. 한편, 위헌 판결 후 트럼프행정부가 발표한 122 조 기반 글로벌관세에 대해서도 미 24 개주 관세무효소송 제기
- 트럼프대통령, 국토안보부 장관 교체 발표(크리스티 노엠→마크웨인 멀린). 1 월 미네소타 총기 사망사고 등 과잉 이민단속 비판 이후 조치
- 한편, 트럼프대통령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되던 AI 칩 수출 사전승인제도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규정 초안 마련 소식. NVDA(+0.2%), AMD(-1.3%)

경제지표는 견조한 고용+인플레 압력 확인, 채권금리 상승

- 2 월 챌린저 감원 계획은 4.8 만명으로 전월비(10.8 만명) 축소.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.3 만명으로 컨센 소폭 하회
- 효율적이지만 비싼 노동력: 4Q25 비농업 노동생산성은 QoQ 2.8%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컨센 상회. 시간당임금/노동생산성 지표인 단위노동비용은 2.8%로 전분기·컨센 상회
- 1 월 수출물가 MoM 0.6%(컨센 상회), 수입물가 MoM 0.2%(컨센 하회). 1 월 연료수입물가 MoM -2.2%(천연가스 +3.3%, 석유 -2.7%)로 수입물가 상승을 방어했으나, 3 월 이란사태 이후 유가에 따른 물가압박 우려 확대
- 미 국채금리 상승 10Y 4.139%(+5.6bp), 2Y 3.581(+3.7bp)

특징주: AI 칩 수출 불확실성 확대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+0.2%	트럼프 행정부가 AI 칩 수출 허가제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규제 초안 마련 중이라는 소식 보도. 차세대 칩 GB300 대량 도입 시, 해당국 정부의 보증과 미국 내 상응 투자를 요구한다는 내용 존재. 수출 불확실성에 AMD(-1.3%) 주가 하락
ORCL	오라클	+1.6%	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CAPEX 부담 가중으로, 수천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 발표하며 비용 효율화에 나섬. 한편 S.W섹터 회복 기조도 지속되는 중
BRK-B	버크셔해서웨이	+2.7%	그라그 아벨 신임 CEO는 약 2년만에 자사주 매입 재개. 이는 내재가치 대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실행하는 버크셔의 오랜 철학이라 강조. 또한 CEO 본인의 세후 연봉 전액($15M)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재임 중 지속 매수 약속
UAL	유나이티드항공	-5.0%	중동 전쟁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섹터 전반 하락
EXPE	익스피디아	+13.7%	오픈AI가 챗GPT 내 직접 결제 기능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예약 플랫폼과의 협업 모델을 강화하기로 결정. AI 잠식 우려 해소되며 주가 강세